

보훈 콘텐츠의 장기 활용 및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초 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the Using and Digital Archiving for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백 재 은 (Jaeeun Bae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보훈 콘텐츠의 장기 활용 및 디지털 |
| II. 이론적 배경 | 아카이빙을 위한 기본 방안 제언 |
| III. 보훈 콘텐츠의 현황 조사 및 관계 분석 | V. 결 론 |

요약: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보훈에 대한 위상과 인식이 점차 향상되면서, 이들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국가보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래에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 실재하는 보훈 콘텐츠에 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기 시작했다. 보훈 콘텐츠는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에서 제작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나, 유사한 정보자원이 산발적으로 제작되어 콘텐츠의 특성, 유형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검색 및 이용, 관리, 보존 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훈 콘텐츠의 장기적 활성화와 대중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훈과 보훈 콘텐츠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보훈 콘텐츠에 관한 기초 연구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훈 콘텐츠의 현황을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기적 활용과 가치 지속을 위한 방안으로,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국가보훈, 국가보훈부, 디지털 아카이빙, 독립, 민주, 보훈, 보훈 콘텐츠, 아카이브, 장기 보존, 호국

ABSTRACT: As the National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as promoted in 2023, and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se functions and roles began to be emphasized as the status and awareness of Patriots & Veterans gradually improved. As interest in 'Patriots & Veterans' increased perspective, attention to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which actually exist as a medium to deliver in the future, also began to increase.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are produced and serviced by various organizations, but various similar information resources are sporadically produced by many organizations, so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ontents are not unified, and a systematic system for search, us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s not established. In order to revitalize, popularize, and improve accessibility of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o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ystematic analysis, arrangement, and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Therefore, this study was as basic study on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whi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from a macroscopic viewpoint. In addition, digital archiving of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was introduced and suggested, as a way to use and sustain the value of the Contents.

KEYWORDS: Contents of Patriots and Veterans, Digital Archiving, Long-term Preservation,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atriots & Veterans

* 본 연구는 2023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aeeunb@duksung.ac.kr / ISNI 000 0004 7875 8452)

• 논문접수: 2024년 11월 23일 • 최초심사: 2024년 12월 3일 • 게재확정: 2024년 12월 16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4), 119-144,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4.202412.119>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우리나라에 있어 ‘국가보훈’은 ‘독립과 호국, 민주의 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위기를 이겨내고 공동체를 구해 낸 주요 역사이자 중요한 기록’(라미경, 2022)으로, 우리의 시대적 역사상을 반영하는 귀중한 자산이자 사회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자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훈의 역할과 이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2023년 대한민국 자유주의 구현, 보훈 체계 확립 등을 위해 출범한 군사원호청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 범국가적으로 보훈(報勳)에 대한 위상과 인식이 향상되고 보훈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이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훈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훈을 널리 알리고 장래(將來)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 실재(實在)하는 보훈 관련 콘텐츠에 관한 관심도 동시에 발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보훈 콘텐츠는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를 위한 교육적·역사적 정보이자 후대를 위한 증거적 가치를 지닌 정보자원으로, 다양한 유형의 매체, 채널, 내용 등을 통해 개발 및 이용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의 주된 유형이 아날로그 자료, 비디지털 정보자원(non-digital)에서 디지털 정보자원(digitized, born-digital)으로 전환되면서 양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시대적 배경, 시대별 특정 인물과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가 계속 제작되면서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보훈 의식 함양과 보훈 문화 확산, 콘텐츠 매체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보훈 콘텐츠의 역할 및 기능이 강조되면서,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리, 보존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많은 기관에서 제작되어 온·오프라인에서 다방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보훈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르게 정확한 정보와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현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미래에 역사 기록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 절대적·정보적 가치를 지닌 보훈 콘텐츠를 보다 발전시키고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훈과 보훈 콘텐츠에 대한 개념과 범주화의 정립, 콘텐츠의 활용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보훈의 가치와 이들 콘텐츠의 이용 당위성, 서비스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것에 비해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을 뿐 유사한 정보자원이 산발적으로 작성 및 수집되어 콘텐츠의 정의, 특성, 유형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보훈 콘텐츠에 대한 개념, 이용 목적 및 활용 방식이 아직 생소하고 일반화되지 않아 역할, 기능, 가치에 대해 충분히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훈 콘텐츠의 생산, 이용(서비스), 검색, 보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와 이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각종 기관에서 제작·제공된 콘텐츠의 양과 특성이 아직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아

기관별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기능과 서비스의 역할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훈 콘텐츠의 장기적 활성화와 대중화, 올바른 발전 고찰을 위해서 ‘보훈’과 ‘보훈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체계적인 정립,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훈 콘텐츠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보훈부 및 보훈 관련 산하 기관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관별 소장 콘텐츠를 살펴보고 주요 기관을 선정하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이들 기관에서 보훈 관련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특성을 확인 및 분석하여 보훈 콘텐츠의 기초적 개념을 정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매체의 보훈 콘텐츠의 장기적 활용과 가치 지속을 위한 방안으로,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2장은 보훈과 보훈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개념을 정리하여 관련 연구를 나열하였고, 3장에서는 보훈 콘텐츠의 현황, 개념, 범주, 특성 등을 살펴보면서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보훈 콘텐츠의 관계를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여 기술하였다. 4장은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보훈 콘텐츠의 장기 활용 및 체계적인 디지털 아카이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간단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서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보훈 및 보훈 콘텐츠의 개념

보훈(報勳)은 갚을 보(報)와 공적 혹은 공로의 훈(勳)이 결합된 용어로, 사전적 의미 ‘공훈을 갚는다’로 정의할 수 있다. 용어 ‘보훈’은 자체적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국가’를 포함한 용어 ‘국가보훈’도 보훈의 의미를 담아 활용되고 있다.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답한다.’라는 의미로 보훈과 같은 목적을 담고 있으나, 보훈 대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전반에서는 관습적으로 보훈이 통용되고 있지만(정상규, 2020), 국가 정책, 국가용어집 등에서는 ‘국가에 의한 보훈’이라는 개념이 내포된 국가보훈이 보훈과 유사하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의성으로 표현되는 용어 ‘보훈’은 시간 흐름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며 사회마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 발전되고 있다(임수진, 2021).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보훈에 대한 이념을 담고 있었으나, 1961년 군사원호청과 설립법의 제정으로 정의와 개념이 한층 더 정립되었고, 관련 법령, 정책, 기관 등이 설립되고 명칭도 원호(援護), 훈공(勳功), 보호(保護), 보수(報酬) 등에서 ‘보훈’으로 변화되면서(미래경영 개발연구원, 2001), ‘보훈’이라는 명칭의 정립을 꾀하고 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2024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을 표현하는 의미적 범주를 크게 4가지로 살펴보면, ①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②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③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④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 수행으로, 이는 우리나라 보훈의 주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보훈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 기본이념 등을 바탕으로 국가보훈의 목적을 “보훈 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 보훈 가족에 대한 보상·예우 확대,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유엔 참전국 등과의 보훈 외교 강화, 보훈 가족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 혁신,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혁신(국가보훈부, 2023b)”으로 설정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교육 및 인식의 확립·확산 등을 위해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산하 및 관련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보훈 서비스는 “국가보훈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국가보훈처, 2021)를 의미하는 다양한 보훈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보훈 관련 정책, 서비스, 용어, 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어 이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보훈 콘텐츠를 살펴보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훈과 보훈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것들을 바탕으로 ‘보훈’과 ‘보훈 콘텐츠’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표 1 참조〉).

〈표 1〉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보훈과 보훈 콘텐츠의 의미

용어	보훈(報勳: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의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답한다.
	가치	• 독립(獨立), 호국(護國), 민주(民主)
용어	보훈 콘텐츠	
	정의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국가유공자)과 독립·호국(수호)·민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자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교육 및 홍보의 목적을 가진 융복합 콘텐츠
	시간적 범위	•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생산·제작된 모든 정보자원
	유형의 범위	• 비 디지털 콘텐츠(Non-digital), 비 디지털 콘텐츠를 디지털화된 콘텐츠(Digitized), 디지털로 생성된 콘텐츠(Born-Digital) • 모든 유형의 매체를 활용하여 생산·제작된 콘텐츠

〈표 1〉에서 나열한 용어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보훈’은 희생과 공헌의 주된 대상을 국가

로 설정하여 ‘국가보훈’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보훈 콘텐츠’를 독립·호국(수호)·민주에 관한 정보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국가유공자)에 대해 설명하는 콘텐츠이자 역사·문화·교육 및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대민서비스를 시행하는 융복합 정보자원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콘텐츠가 기술하는 정보를 크게 3개의 관점(시간, 유형, 키워드)에서 구분하면, 첫 번째, 시간적 범위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정보자원, 두 번째, 유형적 범위는 비 디지털 콘텐츠(non-digital), 디지털화된 콘텐츠(digitized), 디지털로 생성된 콘텐츠(born-digital)로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범위는 보훈의 주요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독립, 호국, 민주’(송샘, 2021; 임수진, 2021)로 나타낼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적용하였다.

2. 보훈 콘텐츠 관련 기관 및 보훈 콘텐츠의 유형

우리나라는 보훈 의식(보훈 인지, 보훈 정의, 보훈 실천)에 의해 중층적으로 형성되는 애국정신(국가보훈처, 2017)을 한 층 더 강화하고 모든 세대에게 보훈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여러 산하·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 보훈 콘텐츠를 제작하여 기관의 웹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과거 비 디지털 매체가 주된 유형이었으나 급변하는 정보기술과 대중화로 인해 현재 보훈 콘텐츠는 디지털 파일 형식으로 생산되어 시·공간에 제한 없이 이용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보훈 콘텐츠의 개념에 이어 이들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기관과 각 기관의 소장 콘텐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보훈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 기관은 국가보훈부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보훈 문화를 창달하고 보훈 서비스 체계 혁신을 꾀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미래보훈을 위한 보훈 정책 수집하여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보훈부는 현충원, 국립호국원, 국립 민주 묘지, 국립 신암선열공원, 지방 보훈청, 보훈 지청,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등의 산하 소속기관과 복지시설, 국가관리기념관, 보훈병원, 보훈단체, 5.18단체, 블로그/SNS, 공훈 전자 사료관 등과 같은 연관기관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며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이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립, 호국, 민주 등의 키워드를 토대로 관련 다양한 정보자원을 수집·연구·전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전 국민에게 보훈 정보를 다각도에서 전달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직접 제작하거나 기존의 실물 자료(비 디지털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들 기관의 소장 콘텐츠를 좀 더 살펴보면, 호국보훈 시설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구축된 기관(현충원, 국립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은 근본적으로 기

관 관련 정보가 주를 이뤄서 각 기관의 주요 행사, 업무 관련 정보 자원(텍스트, 사진 등), 지방 보훈청과 지청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행해지는 보훈 관련 공모전, 행사 사진 등을 수집하여 디지털 보훈 콘텐츠로 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훈전자자료관, 나라 사랑배움터,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등에서는 기관 관련 정보보다 역사적 지식과 가치의 공유 및 추구에 중점을 두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독립운동 관련 자료(독립유 공자 공적 정보 등)와 임시정부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범국민적으로 보훈 의식과 문화가 점차 향상되면서 보훈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기관이 많아 지면서 이들은 각 기관의 특성을 개발하고 추구하여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앞으로의 보훈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과 장래(將來)의 이용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서 <표 2>에서 언급한 기관들과 소장 콘텐츠를 중심으로 현재 제작·제공되고 있는 보훈 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 보훈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기관 및 보훈 콘텐츠의 유형 및 범위

기관 및 조직명	콘텐츠의 형식	유형 및 범위
국가보훈부	디지털 영상	업무(행사, 홍보), UCC 등
	디지털 이미지	보훈 행사 사진, 포스터 등
	디지털 문서	디지털 신문, 학술 자료, 공적 자료, 공모 문학 등
	디지털 음성	음성 신문 등
국립묘지	웹 정보	-
	디지털 영상	독립 관련 영상(인물, 역사), 호국 관련 영상(인물, 역사), 웹 드라마 등
	디지털 이미지	사진, 인물, 현장 사진, 포스터, 카드 뉴스 등
국립호국원	웹 지도	-
	디지털 영상	업무·보훈 영상(행사, 홍보) 등
	디지털 이미지	보훈 관련 행사 사진, 포스터 등
	디지털 문서	원문 및 회의자료 등
국립서울현충원	웹 정보	-
	디지털 영상	소개/교육, 문화 행사 등
	디지털 이미지	묘역/기념비, 현충원 사진, 책자 등
국립대전현충원	웹 정보	-
	디지털 영상	나라사랑 영상 등
	디지털 이미지	인물 사진, 홍보 책자, 행사 사진 등
국립신암선열공원	디지털 이미지	행사 사진 등
	디지털 문서	업무 원문 및 회의자료 등
공훈전자자료관	웹 정보	-
	디지털 영상	독립운동가 관련 영상 등
	디지털 이미지	독립유공자 사진 등

기관 및 조직명	콘텐츠의 형식	유형 및 범위
나라사랑배움터	웹 정보	-
	디지털 이미지	독립, 호국, 민주 영웅·역사 이미지, 포스터 등
	디지털 영상	독립, 호국, 민주 영웅 및 관련 역사 영상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 디지털 아카이브 DB 별도 구축	
	웹 정보, 웹 목록	-
	디지털 이미지	소장자료(유물), 학술 연구 포스터 등
	디지털 음성	오디오 북 등
독립기념관	* 웹 사이트와 한국 독립운동정보시스템 DB 동시 제공	
	디지털 영상	사이버 전시관, 로드뷰,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이미지	보고서, 사진(기념관, 전시자료 등), 포스터, 유공자 정보 합축 이미지 등
	실물자료	도서, 문서, 생활용품, 악기, 복식, 그림, 사진 등
보훈단체	웹 정보	-
지방 보훈청	웹 정보	-
	디지털 이미지	행사 관련 사진 등
	디지털 문서	업무 원문 및 회의자료 등
	디지털 영상	-
지청	웹 정보	-
	디지털 문서	기관 소개, 업무 원문 및 회의자료 등
	이미지	기관과 행사 관련 사진 등
국가보훈부 공식블로그	웹 정보	-
	디지털 이미지	영웅, 인물 사진, 행사 사진 등
국가보훈부 Youtube	웹 정보	-
	디지털 영상	영웅, 인물, 소개, 보훈부 소개 및 홍보 영상 등

3. 관련 연구

보훈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가 올바르게 성장 및 발전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역사로, 우리나라 전반에 있어 중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학술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독립, 호국, 민주를 거친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훈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인 주제로 현재 여러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보훈 및 보훈 콘텐츠 연구는 군사학, 교육학, 문헌정보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 주제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 및 (재)이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보훈 전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보훈(문화) 콘텐츠, 보훈 정책, 보훈 교육, 보훈 문화 등 폭넓게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임수진(2021)은 보훈을 하나의 사회적 개념으로 살펴보고 보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라이하르트가 제시한 개념의 ‘의미 장’ 분석 틀을 대용하여 보훈의 가치를

‘독립’, ‘호국’, ‘민주’로 언급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보훈 개념을 1) 계열 관계의 장, 2) 통합관계의 장, 3) 역사적 사실, 4) 기능적 반의어로 구분하여 시대적으로 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보훈과 보훈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개념을 광의적·협의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보훈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 이 논문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보훈의 각 가치의 시대적 변화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활용하여 보훈의 정의 및 개념에 직접 적용하였다. 이어서 이흥재, 차용진(2020)은 보훈 문화와 보훈 콘텐츠에 대한 정책,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요인 및 방안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콘텐츠 활성화에 필요한 추진체계, 예산 및 자원, 제반 법·제도적 기반을 위한 영역에 관해 기술하며 이들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있어 ‘보훈 문화 콘텐츠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보훈 문화 콘텐츠 전담부서 설치’, ‘국가보훈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에 의한 보훈 문화 콘텐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이 논문을 통해서 보훈 콘텐츠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장래를 위한 보훈 콘텐츠의 장기 보존에 대한 필요 관점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 소병수, 박현지(2023)는 보훈 분야에의 최신 디지털 기술 도입 필요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보훈 외교의 발전 및 강화, 신구세대의 활동 참여 확대에 있어 온라인 콘텐츠의 개발과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 방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현하여 보훈 외교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향상, 미래 세대에의 공유 및 전달에 대해 함께 언급하고 있다.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 논문을 통해 보훈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필요성에 관해 확인하였고, 디지털 보훈 콘텐츠의 활용성, 전 세계 보훈 대상으로의 콘텐츠 제공 가능성 등에 대해 학습하였다. 특히,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인해 미래 세대에의 전달 및 공유가 가능해지기에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 논문의 전제를 본 연구에 활용하여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라미경(2022)은 미래 세대와 국민 통합을 위한 보훈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국가 정체성이자 공동체 발전의 힘인 국가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기술하며,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구축 방안 모색, 보훈 교육 거버넌스 구축, 보훈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보훈 교육 전달체계의 다양화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논문을 통해 보훈 콘텐츠 가치 전달에 있어 하나의 주제이자 영역에 포함하는 ‘보훈 교육’ 콘텐츠의 중요성에 관해 확인할 수 있었고, 보훈 콘텐츠의 다양화와 전달체계, 디지털화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Ⅲ. 보훈 콘텐츠의 현황 조사 및 관계 분석

보훈 문화 및 보훈 정신 확산, 교육·정보·사회 문화적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국가 중요 정보자원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닌 보훈 콘텐츠에 대한 다각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기초조사로 다양한 기관에서 제작·제공되는 보훈 콘텐츠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보훈 콘텐츠의 특성, 구성, 콘텐츠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1. 보훈 콘텐츠의 현황 조사

보훈 콘텐츠의 현황 조사는 2개의 관점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보훈 콘텐츠를 활발히 생산·제공하는 기관을 조사하여 선정하였고, 두 번째로 선정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을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훈 콘텐츠는 국가보훈부와 여러 산하·소속기관, 관련 조직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첫 번째 기관 조사를 위해, 많은 기관 가운데 콘텐츠 이용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활용 가능케 하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조직도, 관련 누리집, 연관 및 산하 소속기관 등을 바탕으로 기관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기관은 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주제 및 특성(정책·행정·법률·예산·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관의 웹 사이트 혹은 자체 DB 등을 구축하여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관련 14개의 상위기관과 기관 하위조직의 웹 사이트, 유튜브, 공식블로그 등을 모두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그 결과, 80개의 기관에서 약 3만 건의 보훈 관련 정보자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보훈 콘텐츠와 기관의 범주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① 보훈 콘텐츠 서비스 제공 여부, ② 웹 사이트 및 DB¹⁾ 운영 여부, ③ 다수의 콘텐츠 제작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총 56개의 기관²⁾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였다. 다만, DB를 자체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관과 이들 기관에서 활용되는 콘텐츠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어서 일차 수집된 총 56개 기관으로부터 ① 보훈 콘텐츠의 정보 제공성, ② 보훈 콘텐츠의 이용 가능성과 디지털 연속성, ③ 콘텐츠 간의 연동성의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조사 대상 기관을 재정리하였고, 그 결과, 총 6개의 기관에서 8,608개의 보훈 콘텐츠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들 콘텐츠의 서지정보를 각각 확인하여 총 5,968개의 콘텐츠를 본 연구의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3〉 참조). 선정된 6개의 기관은 국가보훈부(웹 사이트, 공식블로그, 유튜브 포함), 국립묘지(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 국립호국원(국립신암선열공원), 지방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단체(광복회)로, 순서대로 각각 1,210건, 2,160건, 10건, 441건, 390건, 1,757건의 콘텐츠를 선별하였다.

1) 보훈 콘텐츠는 기관에 따라 각각의 DB를 구축하여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나라사랑배움터, 독립기념관, 공훈전자사료관,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 대표적 보훈 관련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음

2) 56개의 기관으로는 국가보훈부(1), 국립묘지·현충원(5), 복지시설(10), 공공기관(4), 기념관(6), 지방 보훈청(6), 국립호국원(7), 보훈단체(12), 공식블로그/SNS(5)가 있다.

〈표 3〉 보훈 콘텐츠 기관과 각 기관의 콘텐츠 형식

기관 및 조직명			콘텐츠	
주된 기관	상위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	건수	형식
① 국가보훈부	보훈 홍보관	보훈 영상관	507	이미지(jpg,pdf), 영상(Youtube, mp4), 문서(hwp)
		보훈 사진관	2,691	이미지(jpg)
		나라사랑신문*		(온라인나라사랑신문 연결)
		말하는 나라사랑신문	159	음성(mp3)
	보훈 인물	국가유공자 (공훈록)*		(공훈전자사료관 연결)
		이달의 독립운동가*		(공훈전자사료관 연결)
		독립운동가 자료실	362	문서(hwp), 영상(mp4), 이미지(jpg)
		이달의 전쟁영웅	131	문서(hwp), 이미지 pdf)
②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³⁾	공훈록 보기	2135	웹 정보
	대전현충원	영웅 Story*		(온라인홍보관 연결)
		공훈록 보기*		(군사편찬연구소 연결)
		보훈 영상	25	이미지(pdf), 영상(mp4)
③ 국립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	대구, 경북 독립운동사	10	이미지(jpg)
④ 지방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⁴⁾	독립유공자	441	이미지(pdf, jpg), 웹 정보
⑤ 보훈단체	광복회	이달의 독립운동가	105	웹 정보
		연도별 독립운동가**	285	웹 정보
⑥ 블로그/SNS	국가보훈부 공식블로그	이달의 독립운동가	205	웹 정보
		이달의 6·25 전쟁영웅		
	YouTube	월간 국가보훈부	1552	영상 파일
		이달의 독립운동가		

* 대부분 콘텐츠는 다른 웹 사이트(DB)와 연결되어 기관에서는 소수의 콘텐츠만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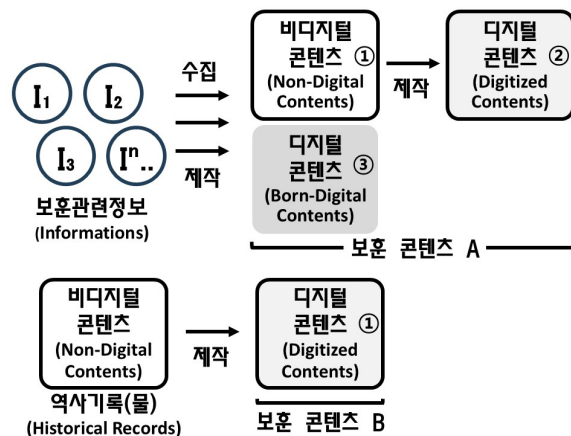
** 대부분 콘텐츠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일부 콘텐츠는 다른 웹 사이트(DB)에서 제공함.

이어서 보훈 콘텐츠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들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크게 2개의 관점 - (1) 내용, (2) 유형(파일 형식) - 으로 간단히 기술하면, 우선, 보훈 콘텐츠가 표현하는 내용의 시대적 배경은 1910년을 중심으로 대한제국(1910년) 이전, 일제강점기(1910년~), 광복(1945년~) 6.25 전쟁(1950년~), 민주화 운동(1960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훈 콘텐츠는 ‘역사 기록물’과 ‘보훈(기관) 관련 정보’라는 상위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역사 기록물’에서는 ‘보훈(호국)’(국가유공자, 전쟁영웅), ‘독립’(독립운동가, 독립유공자)을 주된 키워드이자 주제(主題)로 삼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키워드는 ‘일제강

3) 국립서울현충원의 홈페이지 정보는 현재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보훈 콘텐츠는 2024년 7월까지의 정보이며 현재(2024년 11월)는 ‘공훈록 보기’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홈페이지의 정보는 최신 개편되는 중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보훈 콘텐츠 정보는 2024년 7월까지의 정보임

점기', '독립운동가'로, 역사적·교육적 정보의 역할을 하는 역사 사건과 인물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는 콘텐츠가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역사 인물' 콘텐츠의 경우, 보훈 콘텐츠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으로,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일대기, 해당 인물과 관련된 일련의 시대적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작되고 있었다. 이 외의 정보적 기능으로 생산된 콘텐츠 '보훈(기관) 관련 정보'에서는 보훈 관련 행사, 해당 기관 홍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중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형적인 면에서 보훈 콘텐츠를 살펴보면, 이들은 2개의 유형으로 제작되어 현재 대부분 디지털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역사 기록(물)'은 과거 1차 활용 및 생산된 비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디지털화하여(B-①) 제공되고 있고, '보훈(기관) 관련 정보'는 각종 정보자원을 수집하여 일차적으로 작성된 비 디지털 콘텐츠(A-①)를 각종 파일 형식으로 디지털화한 콘텐츠(A-②) 혹은 직접 디지털로 제작한 콘텐츠(A-③)로 제작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형식은 보훈 정보를 기술하는 (description) 텍스트(hwp, pdf, words, xls, xlsx, ppt)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인물·행사 사진, 포스터 등으로 표현되는 이미지(pdf, jpg, png, gif), 젊은 세대를 위한 보훈 관련 드라마, 역사 소개 쇼츠(Short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영상(mp4, avi, wmv, mov), 오디오 신문 전달을 위한 음성(mp3) 등의 순으로 제작되어 이용되고 있다(〈표 4〉 참조). 여러 기술 파일 형식의 보훈 콘텐츠는 구조적으로 (1) 하나의 웹 페이지 내 여러 유형의 웹 정보⁵⁾ (2) 웹 정보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첨부 파일(다운로드 파일, URL), (3) 타 기관 DB의 URL, 웹 아카이브 DB의 URL로 구성되어 있다. 콘텐츠 대부분은 웹 정보의 형태로 제공되며, (2)와 같이 첨부 파일을 포함할 경우, 웹 정보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웹 페이지 하단부에 다운로드 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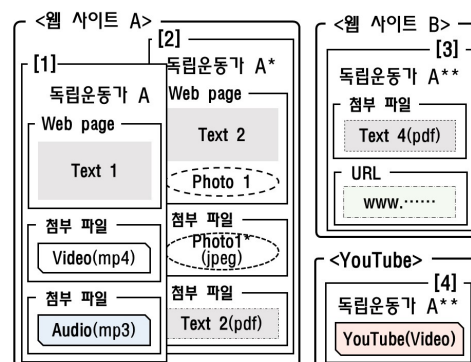
〈그림 1〉 보훈 콘텐츠의 제작 및 전공 방식

5) 웹 정보는 웹 사이트의 웹 페이지에 텍스트와 이미지, 그림 등으로 구성되어 개별적 파일 형식이 아닌 웹 사이트에서 페이지별로 제공되는 정보를 나타냄

〈표 4〉 보훈 콘텐츠의 파일 형식 및 유형

파일 형식		콘텐츠 유형
텍스트 (text)	hwp, pdf, words, xls, xlsx, ppt 등	게시글, 기관(행사) 소개 및 설명, 콘텐츠(역사 기록, 보훈 정보) 설명 및 서지정보 등
이미지 (image)	pdf, jpg, png, gif 등	역사 사진(독립·호국·민주 인물 및 사건), 보훈 (기관) 행사 및 기념사진, 웹툰, 포스터/ 리플릿 등
영상 (movie)	mp4, avi, wmv, mov, mpeg 등	역사 및 보훈 관련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기관 행사 및 홍보 영상, 독립·호국·민주 인물 영상 등
음성 (audio)	mp3 등	보훈 교육 음성 신문 등

보훈 콘텐츠의 내용적·유형(형태)적 특성을 통해 현재 보훈 콘텐츠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예시로 ‘독립운동가 A’를 통해 설명하면(〈그림 2〉 참조), 보훈 콘텐츠는 내용 유사성에 기반한 관계로, 여러 기관에서 동일 혹은 유사 주제의 콘텐츠가 산발적으로 제작되어 앞서 언급한 (1) 웹 정보, (2) 첨부 파일 등의 형태로 중복 콘텐츠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다운로드 콘텐츠(첨부 파일)를 제공하는 경우, 웹 정보의 본문 내용과 첨부 파일의 내용이 다르거나 파일이 삭제되어 실행되지 않았고, 콘텐츠 제목만 기술되어 파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타 사이트로의 이동을 위한 URL이 제공될 경우, 주소가 올바르지 않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아 해당 콘텐츠에의 접근이 되지 않았으며, 보훈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관의 웹 사이트 대부분은 콘텐츠에의 접근이 검색창에 의한 질의 검색이 아닌 브라우징 검색(하나의 상위 카테고리)과 단순 목록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제공되는 콘텐츠에 관한 정보(서지정보, 메타데이터 등)의 경우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기술되어 있어도 제공되는 항목이 콘텐츠 제목과 해당 파일(영상, 이미지), 제목과 3줄 내의 설명 등으로 매우 부족하게 나열되어 있었고, 이들 식별 정보의 기술 표현에 있어 오타 및 구성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서비스되고 있었다.



〈그림 2〉 보훈 콘텐츠 ‘독립운동가 A’ 예시

보훈 콘텐츠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 및 파생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나, 제한적인 키워드와 유사한 주제로 인해 콘텐츠 간의 관계가 중복적이며 단일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앞으로 보훈 콘텐츠의 검색, (재)이용, 수집, 관리, 보존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주제별 콘텐츠 간의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더욱이,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보존 대상 선정, 콘텐츠 접근·이용·관리를 위해서 콘텐츠 간의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콘텐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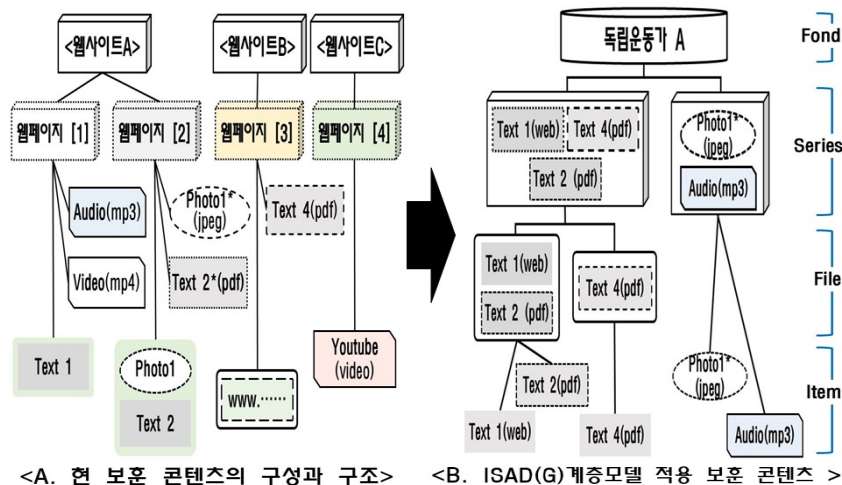
2.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보훈 콘텐츠 간의 관계 및 구조 분석

국가보훈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보훈(호국), 독립, 민주’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기록(사건, 인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자원을 정기적으로(월별, 분기별) 업로드하고 있다. 과거, 이들의 주된 매체의 유형은 첨부 파일이었으나, Web, 정보기술, 매체 등의 발전과 디지털 콘텐츠에의 손쉬운 접근 경로 개발로 인해 다양한 파일 포맷(pdf, words, avi 등), URL, SNS 등이 도입되면서 콘텐츠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하였듯이 현재 디지털화된 보훈 콘텐츠는 유사 키워드 내에서 별도의 기준(내용의 중요성·필요성, 크기, 활용 포맷 등)이나 범주의 구분 없이 생산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는 3.1장과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현 보훈 콘텐츠의 특성을 ① 보훈, 독립, 민주라고 하는 ‘주제 범주의 명확성’, ② 유사 주제·내용으로 구성된 ‘콘텐츠 간의 유사성’, ③ 다양한 유형의 파일 형식으로 제작된 ‘다매체 활용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훈 콘텐츠는 전 국민에게 있어 보훈 문화 전파 및 의식 함양, 올바른 정보와 역사 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콘텐츠로, 장기 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빙이 실행되어야 하는 필수 콘텐츠이다. 이들 콘텐츠의 보존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콘텐츠 가운데 장래(將來)에 전해야 하는 중요 콘텐츠를 찾아 우선 선별해야 하고,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 장기 보존에 적합한 기술 형식, 포맷, 기준 등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변환이 가능한(신재민, 박승진, 2013) 파일 형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되는 모든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콘텐츠의 특징을 비롯하여 관계, 구조 등을 파악하여 보훈 콘텐츠로서의 ‘보존 필요성’, ‘보존 용이성’, ‘파일 형식의 변환 가능성’, ‘재이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보존 가치를 명확하게 부여할 수 있는 핵심 정보자원(Core)을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보훈 콘텐츠의 핵심 정보자원 선정을 위해서는 이들 콘텐츠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콘텐츠 간의 관계 및 구조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그림 2>의

예시를 활용하여 중·복합적인 주제와 여러 파일 형식으로 제작된 기존의 보존 콘텐츠의 구조를 확인하였고, 이를 아카이브를 위해 설계된 ISAD(G)의 계층(level)모델⁶⁾에 적용하여 하나의 주된 주제(main topic) 아래에서 콘텐츠의 구조와 관계를 재구성하였다(〈그림 3〉 참조).

우선, '독립운동가 A'의 동일 주제(키워드)를 나타내는 콘텐츠를 모두 수집하여 〈그림 3-A〉와 같이 분리하고, 이들이 가진 주제 관련성 및 중요성, 파일 형식의 보존 가능성과 보존 가치 등을 모두 확인하여 가장 작은 단위부터 콘텐츠의 분류 및 정리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전체 콘텐츠 가운데 가장 낮은 지적 단위(intellectual unit)이자 단일의 파일 형식(Item)부터 추출하여, 내용 혹은 유형의 연관성에 따라 각 파일 형식(Item)을 하나의 집합(File)으로 1차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집합을 2차 수집하여 상위 카테고리의 시리즈(Series)로, 시리즈를 모두 취합하여 하나의 주된 콘텐츠 '독립운동가 A'의 총체적인 집합체(Fond)로 조직하였다. 즉, 보존 콘텐츠가 가진 내용적 중요성과 필요성, 기술적 보존·변환 가능성 등을 세밀히 평가하고 정보자원을 선정 후 취합 및 재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하나의 핵심 콘텐츠로 '독립운동가 A'를 〈그림 3-B〉와 같이 재구성하여 장기 보존을 실행해야 한다.



〈그림 3〉 ISAD(G) 계층모델에 적용하여 재구성한 보존 콘텐츠

보존 콘텐츠는 형태적으로 단일 혹은 집합 콘텐츠로, 이들은 서로 간의 관계성, 유사성, 공통성을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다발적으로 중복 생산되어 활용되고 있다. 콘텐츠의 관계 분석 및 정리, 핵심 콘텐츠의 선정, 재구성과 같은 과정은 장기 활용 및 보존에 있어 필요한 단계이자 필수적인

6) 계층(level) 모델은 단계별로 하나의 지적 기록물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Item), 집합(File), 시리즈(Series), 기록물 전체 그룹(Fond)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정이나, 현재 보훈 콘텐츠를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이 부재하고 이들을 관리,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 아카이빙에 적합한 핵심 콘텐츠를 선정하거나 모든 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보존은 쉽지 않다. 이에 다음에서는 보훈 콘텐츠의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을 정리하여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V. 보훈 콘텐츠의 장기 활용 및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본 방안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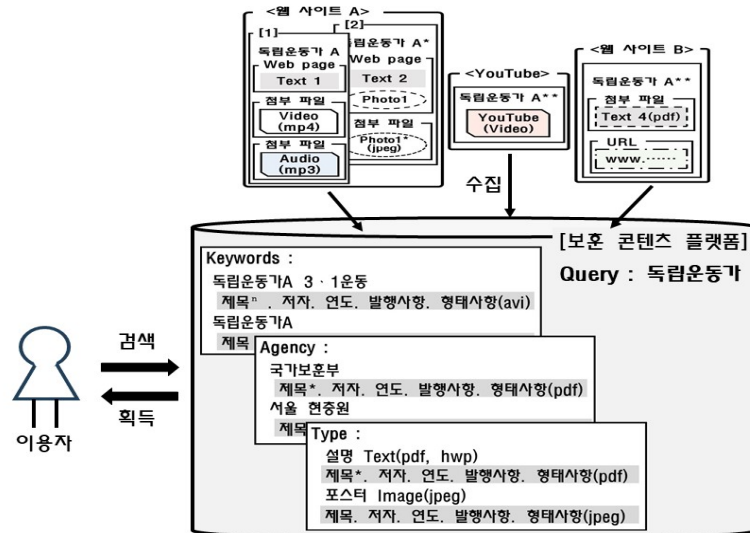
보훈 콘텐츠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해 제작되어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공유 정보자원으로,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대한민국에 대한 주요 기록이자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닌 콘텐츠이다. 현재까지 생산된 다수의 보훈 관련 정보와 과거 생산된 역사적 중요성을 갖춘 기록물을 각종 기술 형식으로 제작, 디지털화하여 전 국민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보훈 콘텐츠의 대부분은 보존 보다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장래에 중요한 증거적·정보적·역사적 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보훈에 관한 의식과 관심이 증가하며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훈 콘텐츠에 대해 살펴보고 콘텐츠의 (재)이용과 보존의 올바른 진행에 대해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의 활용성 제고 및 접근성 향상, 후대를 위한 보존성 강화 등에 있어서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필수 과정이지만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앞서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현 문제점 전반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훈 콘텐츠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존 가치의 유지 및 향상, 앞으로의 디지털 아카이빙 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본 방안 제안을 2개의 관점 - 보훈 콘텐츠의 (재)이용 활성화,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본 방안 - 으로 구성하여 각각 기술하였다.

보훈 콘텐츠의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 주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 ① 다양한 파일 기술 형식의 콘텐츠의 산발적 제작 및 서비스
- ② 디지털 콘텐츠의 현황 파악 부족과 관리·운영 소홀 (다수의 휘발성 콘텐츠)
- ③ 기관 웹 사이트의 미흡한 검색서비스
- ④ 보훈 콘텐츠의 비조직화 (메타데이터 항목의 미통일 및 분류체계 미제공)
- ⑤ 보훈 콘텐츠 전문 검색·관리·보존 기관(시스템)의 부재
- ⑥ 기관 간의 협력·연계 결여로 기관별 소장 콘텐츠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

1. 국민 접근성 높은 보훈 콘텐츠 플랫폼 구축

보훈 콘텐츠는 현재 이들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훈 정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서비스되어야 하는 정보자원이다. 일반공중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방안으로 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훈 플랫폼’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보훈 콘텐츠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안으로, 보훈 콘텐츠 플랫폼 구축과 플랫폼·기관 웹 사이트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안하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 이용자 검색 용이성 및 활용성을 위한 보훈 콘텐츠 플랫폼 예시

첫 번째, 「보훈 콘텐츠에의 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훈 콘텐츠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보훈 전문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보훈 콘텐츠는 각 기관의 특성과 역할을 반영하여 디지털로 제작되어 기관 웹 사이트에서 정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이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전 국민이 이용 가능한 시스템 및 플랫폼은 아직 설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유사 주제, 통일되지 않은 파일 형식의 콘텐츠가 산발적으로 제작되어 콘텐츠 간의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보훈 콘텐츠의 체계화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는 보훈 콘텐츠에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각 기관의 시스템에 모두 접근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훈 콘텐츠는 교육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정보자원으로의 역할, 기능을 담고 있는 만큼 이들 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훈 콘텐츠를 생산, 관리,

제공하는 기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들 콘텐츠를 대상으로 전반에 걸쳐 조사 및 분석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검색·접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카테고리, 키워드 등) - 기관별·유형별·주제별 등 - 로 구성된 보훈 전문 통합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보훈 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성과 보존성 향상을 위해 콘텐츠 파일의 기술 형식을 통일해야 한다.』 현재 보훈 콘텐츠는 내용, 전달 목적과 방식 등에 따라 각기 다르고, 대부분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유형, 여러 파일 형식(hwp, words, pdf, xls, avi, mp4, jpeg, png 등)을 활용하여 제작되어 지도, 포스터, 신문, 카드 등으로 제공되어 이용되고 있다. 보훈 콘텐츠는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웹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예를 들면 콘텐츠의 운영 및 연동 진행 확인, 최신 파일 형식으로서의 변환 등이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지 않아, 과거 콘텐츠의 경우 파일 손상 오류가 발생하거나, 낙후된 파일 형식으로 인해 파일이 깨져서 이용 불가능한 상태로 전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들 콘텐츠에의 이용자 접근 용이성 및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제작되어 제공된 보훈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의 불편을 낮추기 위해서는 장기 활용을 위한 파일 형식으로서의 관리 및 변환이 실행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기술 형식의 통일 혹은 동일 사양의 이용을 지향해야 한다. 더욱이 이들 콘텐츠는 다수의 기관에서 지속 생산되고 있기에 콘텐츠의 형태별로 가능한 범주(예를 들면 텍스트: pdf와 hwp, 이미지: jpg와 pdf, 영상: mp4, 음성: mp3)를 정립하여 통일 제작 및 제공을 진행해야 한다.

세 번째, 『보훈 콘텐츠에의 접근 용이성과 검색 편의성 향상을 위해 검색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보훈 플랫폼은 부재하여 이용자가 보훈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콘텐츠별로 검색하고 확인하여 콘텐츠를 식별해야 한다. 보훈 관련 기관 대부분은 전문 데이터베이스보다 기관 웹 사이트에서 부분적으로 카테고리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한다. 검색서비스는 브라우징 접근방식으로 상위와 하위 카테고리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카테고리는 조직·기관의 부서(部) 혹은 주제(명)에 따라 웹 페이지 내의 검색창이 설계되어 있다. 다만, 많은 기관에서는 보훈 콘텐츠만을 위한 검색서비스를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훈 콘텐츠의 키워드(인물, 사건), 지역별, 연도별 검색 등의 상세 검색이 불가하다. 또한, 콘텐츠에 관한 정보기술(記述), 서지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모든 콘텐츠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훈 콘텐츠에 대한 검색서비스의 부재와 미흡한 방식, 이용자의 수준, 관심이 반영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 용이성 저하를 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보훈 콘텐츠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획득할 수 있도록 현재 보훈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혹은 웹 페이지)에서의 다각도 검색서비스(해시태그, 검색창을 이용한 질의 검색, 키워드 시각화 등)를 구축해서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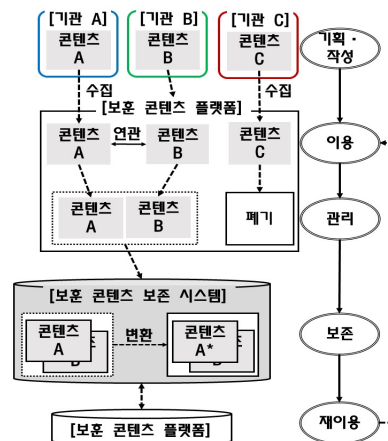
2.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보존 콘텐츠의 체계화 확립

보존 콘텐츠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보존 정보의 활용성, 이용 가능성, 접근성 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주요 국가 정보이다. 이들은 전 국민에게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로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빙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유사 주제의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고, 이들 콘텐츠의 관리 및 보존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기관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보존 정보를 후대에 정확히 전달하고 올바른 디지털화를 진행하기 위한 우선적인 방안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체계화’를 위한 기초 방안을 살펴보고 제안하였다.

첫 번째, 「보존 콘텐츠의 체계화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와 통합 전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보존 콘텐츠는 디지털(born-digital)로 생성되거나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보존 콘텐츠의 관리·디지털 아카이빙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기관 혹은 체계적인 보존 전문 시스템이 부재하여, 현 기관에서는 보존을 위한 관점보다 현재의 즉각적인 활용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보존 콘텐츠에 대한 정보 확인이 쉽지 않고, 콘텐츠의 디지털화 현황, 디지털 아카이빙의 진행 상황, 소재 여부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존 콘텐츠는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보존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들의 가치를 계속 전승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관리 등을 알맞게 수행할 수 있는 총체적인 프로세스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보존 콘텐츠의 아카이빙 전문 프로세스는 기존의 보존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산발적으로 분산된 모든 콘텐츠를 목적에 따른 단계별(작성, 이용·서비스, 관리, 보존 등)로 구분하여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가 가진 속성에 따른 분석 등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림 5>와 같이 5W1H 모델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활동을 실행한 기관(Who)과 일정(When), 보존 의식 및 문화 향유, 교육·역사 전승 등의 목적(Why)을 토대로 선정된 주제(What), 표현된 기술 파일 형식(How), 그리고 보존 및 (재)이용 기관(Where)에 따른 지침 및 환경이 보존 콘텐츠를 위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축된 보존 콘텐츠 전문 보존 시스템은 일반공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4.1장에서 기술한 ‘보존 콘텐츠 플랫폼’과의 연동을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 「보존 콘텐츠의 보존과 장래의 (재)이용을 위해 콘텐츠 간의 관계와 구조, 유형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앞의 3.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존하는 보존 콘텐츠는 주제, 내용, 매체에 있어 서로 관련성 및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서의 지속 생산으로 양적 증가가 시작되면서 콘텐츠 범위, 구성요소, 기술 정보, 콘텐츠 간의 관계 등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급속한 정보기술의 변화로 다양한 파일 포맷이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면

서 보훈의 관점에서 콘텐츠를 모두 디지털화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10년, 20년 이후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리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이에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주제적,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활용적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디지털 보존이 가능한 형식의 정보자원을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및 (재)이용을 위한 형식으로 변환하여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우선, 현재 콘텐츠를 생산하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정보와 구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주제 혹은 활용 방식에 따른 기술 형식의 통일화 및 변환(유형에 따른 전환)을 위한 지침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콘텐츠에 대한 기술 정보(description)의 경우, 기존의 텍스트 파일(hwp, words, pdf, 웹 사이트 등)을 모두 PDF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유사 주제의 경우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콘텐츠 집합으로 구성하여 장기 보존이 가능한 하나의 파일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보훈 콘텐츠 제작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동일 및 유사 주제 콘텐츠 정보를 공유하여 추후 중복적인 정보자원이 (재)생산되지 않고 질적으로 향상된 정보가 디지털로 전송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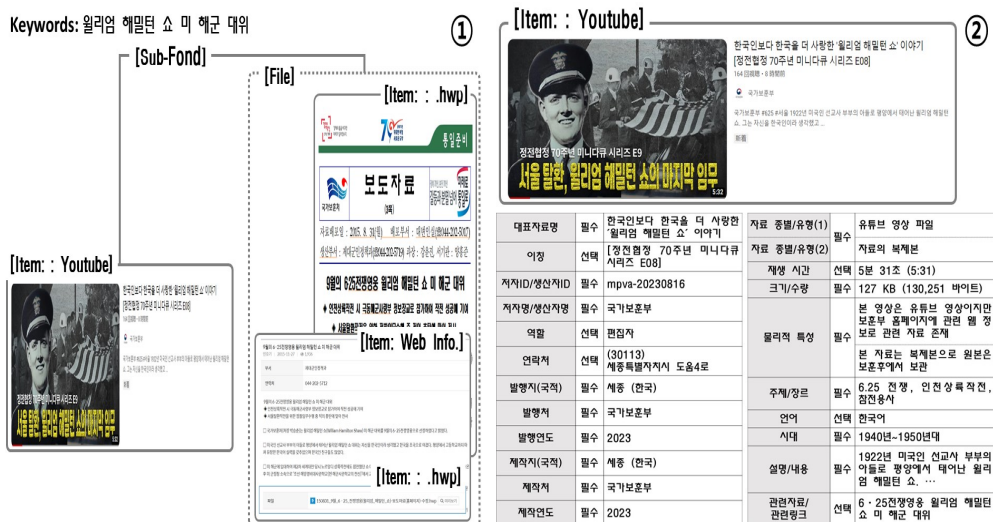


〈그림 5〉 보훈 콘텐츠 단계별 프로세스

세 번째,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조직화 과정으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스키마 및 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현재 일반 이용자가 보훈 콘텐츠로의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보훈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기관 웹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기관 웹 사이트에서는 보훈 콘텐츠를 위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콘텐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항목(서지정보), 검색·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 등도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정보자원에 각기 다른 통일되지 않은 키워드(용어)가 부여되어 검색에 이용되고 있다. 정보자원을 기술·관리·보존하는 형식(메타데이터, 분류체계 등)은 여러 목적에

따라 설계되지만, 보존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검색 용이성, 보존성 향상 등, 관리 체계의 기능에 있어 꼭 필요한 기준 요소이다. 그러나 보존 콘텐츠를 나타내는 형식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파일 포맷, 주제, 내용 등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보존 콘텐츠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 정보자원의 이용, 관리, 디지털 아카이빙을 실행하는데 있어 여러 제약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획득 가능한, 그리고 장기 보존 지속에 적합한 통일된 기술항목 및 메타데이터 표준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보존 콘텐츠의 보존 전문 시스템과 플랫폼에서의 검색 및 관리를 위해 주제에 따른 통일된 키워드 혹은 보존 시소러스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보존 콘텐츠의 체계화에 필요한 관계 및 구조, 조직화(메타데이터, 분류체계 등) 전반을 <그림 6>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키워드 '윌리엄 해밀턴 쇼'에 대한 인물 정보를 수집하면, 하나의 주제 아래 영상, 텍스트 등의 형식으로 다수의 콘텐츠가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유튜브, 웹 정보, 웹 정보의 첨부 한글파일, 한글파일 등이 있다. 이들 콘텐츠는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태로 콘텐츠의 선정 및 변환 등을 위해 이들의 관계 및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6-①>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유튜브를 기술할 수 있는 정보자원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면 <그림 6-②>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국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보존 콘텐츠의 활용과 디지털 아카이빙에 있어 기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과정이자 작업이다. 따라서, 보존 콘텐츠 보존 전문 시스템과 통합 플랫폼은 정보자원의 단순 저장 시스템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들의 가치가 후대에 존속되면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자의 처리와 유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림 6> 보존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조직화(구조 및 메타데이터) 예시

V. 결 론

보훈(報勳)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가 올바르게 성장 및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사로, 우리나라에서는 ‘독립, 호국, 민주’라는 주된 주제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인물 및 기록, 각종 보훈(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제작된 보훈 콘텐츠는 현재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여러 보훈 관련 기관에 의해 다수의 콘텐츠가 작성, 관리되며 일반 공개되어 이용되고 있다. 이들 콘텐츠는 (국가)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기술하며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자원으로,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국가 정체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훈 콘텐츠 이용의 활성화와 장래(將來)를 위한 관리·보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 현실적 실행 방안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훈’을 나타내는 보훈 콘텐츠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들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여러 관점에서 특성 및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 콘텐츠의 장기 활용 및 보존을 위한 기초 방안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보훈 콘텐츠는 현재 보훈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보훈 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기관에 따라 정기적(월별, 분기별)으로 혹은 콘텐츠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으며, 웹 정보와 첨부 파일(텍스트와 이미지)이 주된 정보 유형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다양한 유형의 매체, 포맷 형식(텍스트(hwp, pdf, words, xls 등), 이미지(jpg, png, gif), 영상(mp4, avi, wmv, mov, mpeg 등), 음성(mp3 등))과 외부 웹 사이트(URL) 등을 도입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보훈 콘텐츠를 제작·관리하는 기관 수가 점차 늘어나고 이로 인한 콘텐츠의 양적 증가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콘텐츠의 질적 내용, 콘텐츠의 활용과 보존 영역(디지털화)에서는 부족함이 본 연구의 현황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다수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어 유사 키워드의 잦은 사용으로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중복성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질적 내용 부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파일 형식(다운로드, 타 사이트로의 연결 등)으로 다발적 제작되어 있어 이전의 콘텐츠의 경우 정리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보훈 콘텐츠에 대한 인식과 가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양적·질적인 발전을 꾀하며 다각도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보훈 콘텐츠의 제작기관, 매체 유형, 내용·주제 등의 체계화 부족, 기술 정보의 비 통일화, 다른 관련 콘텐츠 간의 연관성 및 중복성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보훈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 접근 용이성, 이용 편의성, 장기 보존성 등에 있어 점차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의 지속적인 활용과 보훈 콘텐츠의 보존 가치의 유지 및 디지털 아카이빙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일상에서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보훈 콘텐츠는 유사 주제, 비 통일된 유형의 콘텐츠가 산발적으로 제작 및 서비스되고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정보를 식별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한계, 분산된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일반공중이 일상에서 보훈 콘텐츠를 적극 이용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카테고리, 키워드 등)로 구성된 ‘보훈 전문 플랫폼’과 검색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훈 콘텐츠의 체계화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 파일의 기술 형식을 통일시켜야 한다. 콘텐츠 파일의 기술 형식의 경우, 콘텐츠의 내용과 전달 목적, 방식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작되고 있어 검색 효율성과 정보 정확성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장기 활용과 보존 향상을 위한 기술 형식으로 통일하거나 적절히 변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기준, 방식 등을 추가 정립해야 한다.

두 번째,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체계화 확립’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훈 콘텐츠는 다양한 유형으로 디지털로 생성되거나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장기 보존을 실행하는 보존 전문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으로, 보훈 콘텐츠의 체계적인 수집, 정리, 관리 등을 알맞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아카이빙 전문 프로세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보훈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소장된 콘텐츠부터 산발적으로 분산된 모든 보훈 콘텐츠를 수집하여 콘텐츠 간의 관계와 구조, 유형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단계별(작성, 이용·서비스, 관리, 보존 등)로 구분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보훈 콘텐츠는 양적 증가와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의 제작으로 인해 콘텐츠 간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여 서로 간의 주제, 내용 및 매체별 관련성 및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보훈 콘텐츠를 생산하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정보와 구조를 수집하고 다방면에서의 가치를 분석하여 주제 혹은 활용 방식에 따른 기술 형식의 통일화 및 변환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화 과정으로, 보훈 콘텐츠 플랫폼과 보훈 전문 아카이빙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스키마 및 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보훈 기관 웹 사이트에서는 검색서비스와 콘텐츠 기본 정보의 기술항목(서지정보), 검색, 이용, 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 등이 부족하거나 기술되고 있지 않다. 다양한 목적에 의해 기술되는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아카이빙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인 만큼, 통일된 기술항목 및 메타데이터 표준은 꼭 구축되어야 하며 검색 용이성을 위한 키워드 통일 혹은 보훈 시소러스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보훈에 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인식 변화로 인해 보훈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보훈 콘텐츠는 교육적, 역사적, 국제적, 사회적 가치 등을 충분히 담고 있지만, 이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디지털 아카이빙은 아직 정책적, 제도적,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되고 있지 않고, 현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재)이용과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과 실행도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보훈은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주요 기록으로, 보훈과 보훈 콘텐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연구실행 및 실질적인 방안 구축은 현재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보훈 콘텐츠의 문제에 대해 살펴 보았고, 이에 따른 기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훈 콘텐츠를 좀더 상세히 분석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플랫폼 구축, 메타데이터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광복회 (1992). 이달의 독립운동가. 출처: https://www.gwangbok.kr/sub_2/2_1.php
- 광복회 (1992). 연도별 독립운동가. 출처: https://www.gwangbok.kr/sub_2/2_2.php
-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제20278호.
- 국가보훈부 (2012. 5. 24.). 국가보훈부 공식 유튜브 채널. 출처: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T0GWxHHznabonSbWf7cg>
- 국가보훈부 (2023a). 국가보훈부 소개. 출처: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231>
- 국가보훈부 (2023b). 2023년 보훈연감 제44호 (11-1830000-00024-10).
- 국가보훈부 공식블로그 (2016. 1. 28.). 이달의 6·25 전쟁영웅. 출처: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pvalove&from=postList&categoryNo=25>
- 국가보훈부 공식블로그 (2016. 1. 28.). 이달의 독립운동가. 출처: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pvalove&from=postList&categoryNo=9>
- 국가보훈처 (2017).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11-1180000-000363 -01).
- 국가보훈처 (2021. 10. 21.).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1386호.
- 국립대전현충원 [발행년불명]. 국립대전현충원의 영웅들. 출처:
<http://www.dnchero.kr/online/online.php?type=0>
- 국립서울현충원 [발행년불명]. 공훈록 보기. 출처: <https://www.mpva.go.kr/snmb/index.do>
- 국립신암선열공원 (2018). 대구, 경북 독립운동사. 출처:
<https://www.mpva.go.kr/sinam/selectBbsNttList.do?bbsNo=314&key=936>
- 라미경 (2022). 미래세대와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보훈논총, 21(4), 41-61.
- 미래경영개발연구원 (2001). 국가보훈처 새로운 이념 정립과 비전 수립에 대한 연구. 출처:

file:///C:/Users/DS/Downloads/GOV_2014_PRISM_007332.pdf

소병수, 박현지 (2023).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보훈외교의 발전 방향.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3(2), 35-52. <https://data.doi.or.kr/10.23045/kjpd.2023.3.2.035>

송샘 (2021). 보훈의 의미에 관한 국민인식 연구: 공헌 유형별 보훈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20(4), 113-142.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91151

이흥재, 차용진 (2020). 보훈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요인의 중요도 분석과 함의: 학계 및 실무 전문가의 인식 비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4), 185-210.

임수진 (2021). 개념사 관점으로 보훈: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20(3), 35-61.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57024

정상규 (2020). 보훈 정책의 개선 방향 및 기대 효과: 보훈 역사·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Daejeon National Cemetery [n.d.]. Heroes of the Daejeon National Cemetery. Available: <http://www.dnchero.kr/online/online.php?type=0>

Framework Act o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hapter 20278.

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1992). The Independence activist of the month. Available: https://www.gwangbok.kr/sub_2/2_1.php

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1992). The Independence activist by year. Available: https://www.gwangbok.kr/sub_2/2_2.php

Institute of Future Management Development (200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Vision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vailable: file:///C:/Users/DS/Downloads/GOV_2014_PRISM_007332.pdf

Jung, Sang-Gyu (2020). Improvement Directions and Expected Effects of Veterans Welfare Policy: Focusing on History and Culture Contents of Veterans Welfar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Hong-Jae & Cha, Yong-Jin (2020). Priority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policy infrastructure for activating of the veterans culture contents: a comparison between academic and practical expert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30(4), 185-210.

- Lim, Su-Jin (2021). Conceptual history of ‘Honoring Patriots and Veterans’ in South Korea: focusing on its three values— independence, national defense, and democracy.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20(3), 35-61.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57024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12, May 24).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Youtube. Available: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T0GWxHHznabonSbWf7cg>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17). A Study on the Use of Cultural Contents to Cultivate Patriots and Veterans’ Consciousness (11-1180000-000363 -01).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23a).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rganization. Available: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231>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23b). 2023 Annual Report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No. 44 (11-1830000-00024-10).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Vlog (2016, January 28). A War Hero of Korean War of the Month. Available: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pvalove&from=postList&categoryNo=25>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Vlog (2016, January 28). The independence activist of the month, Available: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pvalove&from=postList&categoryNo=9>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21). Order of Regulations on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Content of Patriots and Veterans. Chapter 1386.
- Ra, Mi-Kyoung (2022). A study on the promotion of veterans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 and national integration.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21(4), 41-61.
- Seoul National Cemetery [n.d.]. A Tale of Heroic Deeds. Available:
<https://www.mpva.go.kr/snmb/index.do>
- Sinam National Cemetery (2018). The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 in Daegu, Province of Gyeongsangbuk-do. Available:
<https://www.mpva.go.kr/sinam/selectBbsNttList.do?bbsNo=314&key=936>
- So, Byung-Soo & Park, Hyun-Gi (2023). Application of digital content technology for

veterans diplomacy. Public Diplomacy: Theory and Practice, 3(2), 35-52.

<https://data.doi.or.kr/10.23045/kjpd.2023.3.2.035>

Song, Saem (2021). A study on public perception of national contribution: focusing on perception by type of contribution.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20(4), 113-142.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91151